

전북교육청, '올라' 앱 활용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 강화

도내 교사가 직접 시연... AI 코스웨어 기반 '전북특별한클래스'도 선보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브리핑룸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내용 중 하나인 '올라'를 활용한 학습지원 과정을 시연했다.

'올라'는 학생에게 개인학습 성찰을 돕고, 학교에는 학생 학습 데이터 분석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학습지원 앱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과정을 데이터로 기록·관리·분석해 개인학습 성찰을 지원한다.

특히 이날 시연에는 올라와 연계한 학습관리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전북 사대부고 강두호 교사가 참여해 실제 학급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전북사대부고 강두호 교사가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습지원 앱 '올라'를 활용한 학습지원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강 교사는 학생의 학습전략(계획하기·실천하기·성찰하기)에 대한 교사의 학습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했다. 지난 1학기 동안 올라를 활용하고 있는 반 학생들에게 200개가 넘는 피드백을 남겼다. 이와 함께 함께 공부 기능을 통해서도 학급 아이들의 주간 평균 학습시간, 주간 학습누적 등 학습 현황을 데이터로 관리해 빈틈없는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또 올라 앱 질문창고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멘토링 LIVE로 예정된 시간 또는 실시간으로 즉문즉답도 가능하다.

올라를 활용한 학습관리지도 운영하는 학교도 밝혔다. 이는 월 학습시간 상위 랭킹 10명을 시상하거나, 함께 공부 챌린지를 통해 학급공부시간 상위 랭킹 3학급에게 간식꾸러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강 교사는 "학습지원 앱 올라를 활용한 학습관리가 아이들의 학력신장과 학급경영에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AI 코스웨어 기반인 '전북특별한클래스'도 선보였다. '전북특별한클래스'는 진단평가와 총괄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교과 학습 및 평가 콘텐츠를 수준에 맞게 제공하고, 방과 후 또는 가정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

이에 초등학교 3~6학년 2만 명, 중학교 1·2학년 중 희망 학생 1만 명에게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전자철관을 활용한 학생 스마트기기(웨이북)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학습이 더디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해 성취도를 확인하는 과정도 보여줬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할 수 있는 교육용 앱을 만들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27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 교육발전특구 적극 지원하겠다"

서거석 교육감, 정읍시 학부모·교직원 대상 '공감토크'

서거석 교육감이 27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에 참석, 지역 학부모 및 교직원 450여 명과 함께 학력신장 등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공감토크 참석자들은 △시내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사서 배치를 통한 독서·인문교육 강화 △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학생들의 체력 신장 방안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서 교육감은 정읍이 2차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정읍이 무성서원, 태산선비문화, 동학 등 지역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3년간 매년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이어 정읍교육지원청을 찾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정읍중학교를 방문해 진로진학 운영 현황도 살펴봤다.

한편 공감토크는 서거석 교육감이 14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학력신장과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과 지역 교육현안을 주제로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장은성 기자



베트남 빈 대학에서 열린 산학 공동 인프라 구축 세미나.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수의·축산 역량강화 위해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전북대, 베트남 빈 대학에 '산학협력센터' 개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베트남 빈(Vinh) 대학에 산학협력센터를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 간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북대는 빈 대학에 수의학과를 신설하고 축산 분야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술보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대 국제협력선도대학 베트남사업단(단장 김남수)은 빈 대학의 수산양식·축산학과에서 축산 분야를 분리하고, 수의학 교육과정을 추가해 '수의·축산학부'로 개편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의 거점이 될 산학협력센터를 빈 대학에 설치, 총 7개년에 걸친 '베트남 빈 대학교 수의학과 신설 및 축산 분야 교육역량 강화 사업(ALIVE)'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빈 대학의 수의·축산학

부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양질의 교수 인력 양성,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확대 등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 8월 20일 빈 대학에서 김승운 교수(경영학과)와 김법석 교수(수의학과), 빈 대학 트란 바 티엔 부총장 등 양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법석 교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현황과 산학협력의 긍정적 성과인 기술이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베트남 빈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승운 교수는 연구소나 전문가 등 연구개발 인프라가 취약한 빈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빈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기자재,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 부족으로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평생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9월 6일까지 전북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dongam18@jedu.kr)로 신청하면 된다.

9월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11월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기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3년이며, 교육감이 매년 평가를 실시해 운영기관 지정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기초과학 선도한다

교육부 '대학 기초연구소 사업' 신규 예비 대학 선정돼 5년간 연 50억 지원 '물질·에너지과학' 중점 연구소 구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50억 원 규모의 교육부 '대학 기초연구소(G-LAMP) 사업' 신규 예비 대학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를 개편·운영하고, 신진 연구인력 육성과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7일 전북대를 비롯한 6곳의 예비 선정대학을 발표,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후 다음 달 최종 확정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대는 교육부로부터 연간 50억원씩, 5년 동안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물질·에너지과학' 분야의 중점 테마연구소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소와 연계해 실무형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국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북대학교 본부 전경

이승재 대학원혁신·연구처장 겸 대학 기초연구소(G-랩) 사업단장은 "물질·에너지 분야 기초과학 연구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신진연구인력 발굴과 국제공동연구 우수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베트남 주류 유통회사와 협약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24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된 국제프리미엄 박람회인 MEGA-US EXPO 2024에서 주류 유통회사인 키엣 투옹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의 해외수요기업 발굴 및 유망바이어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다른 이름 '하투주'에 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사업마케팅, 판매, 공급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이다. 이 외에 양국 간 물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베트남 물류기지를 활용한 동남아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다른 이름 농업회사법인(주)은 2022년 전주대학교 실업직 창업기업으



로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과 누룩 기술을 연구 개발, 올해 6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인 IWSC 2024에서 BRONZE 상을 받기도 했다. 김경식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의 수출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며 "현지 판매를 통해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내일까지 부안서 금연결심 옴트리 캠프 1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변신리조트 일원에서 중·고등학교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결심 옴트리 캠프 1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흡연 학생들에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면서 또래 중심의 신체활동과 체험형 활동을 통해 금연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험형 금연 교육 △금연 동기 강화 및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포대간 금연 연대 팀워크 활동 △금연결심 발표 및 서약 등이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금연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단계별 금연 실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 41명 등 총 96명 최종 합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1,077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96명이 합격했다.

지역별로는 교육행정 41명, 전산 3명, 공업(일반기계) 2명, 공업(일반전기) 4명, 식품위생 3명, 시설(일반토목) 1명, 시설(건축) 5명, 시설관리(일반) 22명, 운전(일반) 15명이다. 특히 최종합격자 중에는 장애인 4명, 저소득층 2명도 포함, 공직 임용의 다양성

을 확보하고자 했다.

연령별로는 20대 46명(47.9%), 30대 32명(33.3%), 40대 이상 18명(18.8%)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50세(시설관리)·최연소 합격자는 20세(교육행정)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9일 분청 창조나래(별관)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최종합격자 명단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안내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지방공무원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